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12.(월) 13:30 < 1. 13.(화) 조간 > 배포 2026. 1. 12.(월)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다하자”

-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열띤 토론 -
- 공공기관 업무보고 마무리, 장관 주재 정례 간담회로 이행상황 점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하였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되었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자원안보 확립, ▲석유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등이 논의되었으며,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총력 지원 방안,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투자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총 4회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은 각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소재 기관은 지방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소상공인 상생에 앞장서고,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 등 윤리경영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카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5530)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5537)
			사무관	김재민 (044-203-55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개요

□ 추진배경

○ **'26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공기관·유관기관 대면 업무보고 추진

□ 보고계획

① **1회차 : 가스·원전수출 분야(5개 기관)**

- **(일시/장소)** '26.1.8(목) 14:00 ~ 16:30 / 무역보험공사
- **(참석대상)**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 한수원

② **2회차 : 무역안보·표준 분야 (6개 기관)**

- **(일시/장소)** '26.1.9(금) 09:20 ~ 11:40 / 무역보험공사
- **(참석대상)** 무역안보관리원, 제품안전관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생산성본부

③ **3회차 : 산업 분야 (7개 기관)**

- **(일시/장소)** '26.1.12(월) 09:00 ~ 11:30 / 대한상의
- **(참석대상)**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탄소산업진흥원,

④ **4회차 : 자원·수출 분야(7개 기관)** ※ 생중계

- **(일시/장소)** '26.1.12(월) 13:30 ~ 16:00 / 대한상의
- **(참석대상)**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석유관리원, 석탄공사,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 각 기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및 상세이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기관별 5분내외 발표)**, 참석인원은 기관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5~10인 참석**

* 산업부 소관 실·국·과장 및 담당자 배석

참고 2 공공기관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산업 분야)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5극3특 기반의 지역 신산업 성장지원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기관 이전 지역(대구)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 투자유치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투자수요 발굴부터 보조금 지원, 신(新)산업 입지 공급, 규제·애로 합리화, 연구개발(R&D) 및 수출지원까지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신산업이 입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생산공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AX실증산단 지정, 산단 5G 특화망 등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AI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협업해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M.AX 클러스터로 전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AX실증산단 지정계획 : 3개소(현재 전국 10개 AX실증산단 지정)
산업단지 5G 특화망 : 1개소('26년 신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단 내 고위험지역과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DR) 체계를 강화하여 무중단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산단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지역 생산품 판매장터, 소상공인 팝업 스토어 같은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형 상생 활동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지역중심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기업성장, 신통상전략 세계시장 개척 등의 정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 산업기술혁신 생태계 구축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성장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KIAT는 지역성장 정책의 실무를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센터로서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책 기획 및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14개 시도별 개별 지원사업을 성장엔진 육성사업으로 개편·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위기업종 지역의 기업도 이차보전사업 등의 지원 규모를 확대('25년52억 원→'26년247억 원)하고, 신속 대응을 통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및 첨단·주력산업의 제조혁신에 필요한 기반조성도 나선다. 제조AI 대전환을 위해 제조기업들의 데이터(공정, 물류 등 5개 유형) 전처리, 공급망 내 기업간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상반기 내 착수하고, 첨단·주력산업 기업들의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실증·설계·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조성 및 양산성능평가도 지원해 나간다.

첨단·신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엔진과 정합성을 고려한 특성화 대학원 선정방식 변경 및 산학 프로젝트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해외 석학 유치(14명) 및 외국인 장학생 인턴십 지원(100명) 등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고급인재 양성·공급한다. 또한, AI 등 첨단기술분야의 선도국과 국내기업 간 공동연구를 밀착 지원하여 첨단기술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이전·평가와 투·융자 정보 통합제공, 민간투자와 연계한 사업화R&D 지원과 함께 산업기술정책펀드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융자사업(900억원)으로 기업의 조기 성장과 주식시장 진출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해소와 수출·법률 등의 컨설팅도 추진한다.

KIAT는 2025 민원처리 실태점검 최우수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최고등급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민참여혁신단,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들과 협업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참여와 전문가 협업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KEIT)은 「AI 주도 초혁신성장, 기술기반 산업강국의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산업기술 R&D 기획·평가·성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제조혁신 및 첨단·신산업 육성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총력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KEIT '26년 예산 : 4.24조(소재부품장비 1.72조원, 제조기반 5,898억원, 수송기기 5,619억원, 스마트전자 3,779억원, 바이오헬스 2,791억원, 탄소중립 2,395억원 등)

먼저, "기술주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기획을 추진한다. KEIT는 우리 산업계가 제조업 분야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 실현에 필수적인 혁신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R&D 과제 상세기획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M.AX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으로서, AI·부품·수요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계 이해관계자의 기술수요가 공공R&D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얼라이언스 운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소부장 슈퍼乙 기업 육성을 위한 R&D 과제 기획도 추진해 나간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위기극복 및 친환경화" R&D 기획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등 위기산업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철강·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감축기술 조기 확보와 실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및 신규 대형R&D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 보다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비 정산 및 장비도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정보 수집 및 서류작성 등에 도움을 주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KEIT는 중대재해·개인정보유출 Zero, 지역인재 채용(38.4% 달성) 및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우수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2025년 한국 경영대상 소통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 향후에도 KEIT는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과 AI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 ▲디자인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강화, ▲K-디자인 해외진출 확대를 핵심 축으로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자인테크 핵심기술개발, 디지털 융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디자인과 AI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과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통해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성장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디자인산업진흥사업 : '25년 32,840백만원 → '26년 34,520백만원

또한, 산업현장 안전디자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디자인 활용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주요 해외 전시회 참가, 디자인 시장개척단 파견, 우수디자인상품(GD) 제도의 글로벌화를 통해 K-디자인의 국제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21~'24년 산단 입주기업 16개사 안전디자인 개발·적용, 적용 후 산업재해 0건 달성, 근로자 만족도 평균 90%이상, '24년 적용 전-후 체감안전도 28% 상승

아울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최근 5년간 사업장 사망·상해 사고 '0건' 유지 및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없이 기관 운영을 지속해 오는 등 경영관리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전국 7개 지역에 구축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퓨처디자인포럼 및 디자인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과 정책 공감대 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확산, ▲품질, 기업경쟁력, 인력 등 핵심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및 로봇 인프라 기반 조성의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먼저,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핵심 제조산업의 공정에 AI 기반 제조로봇을 실증하는 AI 팩토리 실증과 산업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실증 사업을 통해 산업 전환기 제조 기업들의 AX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신기술에 대한 표준·안전인증을 개발하고, M.AX 얼라이언스 내 로봇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조 로봇 표준 모델을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로봇 전문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생활·산업현장에 로봇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하여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로봇의 제품화·사업화를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조성하는 등 첨단로봇 친화형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로봇진흥원 관계자는 “26년은 AI·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별 실증 단계를 넘어 제조·서비스 전반에 본격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X 기반 제조혁신과 휴머노이드 실증·표준·인력양성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첨단산업 세라믹소재 기술자립, ▲희소세라믹 공급망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3대 축으로 하는 중점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개발 체계를 단기·소액 과제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임무중심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첨단세라믹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아울러 중대형 전략과제를 통해 기술 축적과 기업 상용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특히, 세라믹 제조업 특화 AI 모델 개발을 통해 소재 설계·공정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연구개발 방식 자체를 혁신한다. 아울러,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실증·성능평가를 지원해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 세라믹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트리아 등 희소세라믹을 대상으로 공급망 현황 진단과 미래예측 모델을 추진하고 베트남 등 자원보유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현지투자 및 국내 도입 등 즉시 활용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세라믹기술원은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경제로 연결되도록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주·이천·오송 등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공정개선-성능·신뢰성 평가-사업화 연계를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 리스크를 공공기관이 함께 부담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2026년은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를 책임지고,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며, 연구성과를 지역의 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국가 세라믹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내유일의 탄소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올해 탄소산업 성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진흥원은 기업이 개발한 탄소소재·부품을 항공·에너지·방산·모빌리티 등 핵심 수요산업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7.0GPa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산업 핵심기술과 차세대 제조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 전주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중심의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선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수소저장용기(600L 이상)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인증센터를 6월에 개소하고, 특화단지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평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영 분야에서 진흥원은 재난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둔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한다. 지역 상생과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난방 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탄소 바닥난방을 시공하는 '탄소-온(溫)'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대국민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3 공공기관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자원 · 수출)

□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재무여건 조기 정상화, ▲경제성·투명성 원칙하에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자원개발 추진, ▲전략비축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개선, ▲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자원인 석유자원 확보 전담기관인 석유공사는 '20년부터 자본잠식 상황에 있으며 향후 저유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전망임에 따라 자체 진단을 통해 조직효율성, 재무건전성, 투명성 강화 등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부실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국내 수요 변화에 따라 원유와 휘발유를 비축하여 정부가 수립한 5차 비축계획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자원 분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9개 비축기지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를 양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가운데 인구와 차량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위주로 신규 알뜰주유소를 추가하여 소비자 편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과 유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18개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자원 안보에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공단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재자원화산업 육성과 공공비축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또 광산지역 진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광해방지분야에도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망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무 구조를 마련해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공단은 2026년부터 신설된 재자원화 기업 대상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비축과 연계한 수요 창출,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규제 완화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공공비축 부문에서는 핵심광물 비축물량을 지속 확대해 공급망 위기 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공단은 확보한 비축 예산에 따라 2029년까지 핵심광물 비축 목표를 당초 계획('31년)보다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중장기 비축 확대에 대비한 시설 인프라도 확보한다.

광해방지분야에서는 현장 위험성 평가와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폐광지역을 대상으로는 대규모 경제진흥 사업을 추진해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인력·경영체계를 점검하고,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자원화산업 육성과 공공비축 확대는 단기적인 수급 위기 대응과 중장기 공급망 구조 개선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라며 “핵심광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정책 수행 기반을 강화하고, 광해방지와 폐광지역 경제회복, 조직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26년 중점추진과제로서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 프로젝트와 AI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일본 등 아시아 인접국에서 글로벌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는 ‘35년까지 기관 자체 예산을 투자하여 대규모 복합리조트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관광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내 석탄산업 종료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강원랜드는 AI 기술을 도박 중독 예방 영역에 적용하여 도박 중독 예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카지노 과몰입 위험 고객을 조기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기존의 사후적인 도박중독 예방 시스템에서 선제적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강원랜드는 현장 맞춤형 개선조치를 통한 중대재해 제로를 실천하여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지역공헌 활동 등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강화와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등 新석유대체연료 보급 인프라 마련을 지원하는 석유대체연료센터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석유관리원은 유가 급등기에 부당이득을 노리는 불법 석유유통 행위와 관련하여 특별기획검사 추진을 통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가짜석유,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탄소감축 규제 강화에 따른 이행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SAF 혼합의무화 제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충북 청주)를 구축하여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26년에도 불법석유 유통을 차단하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면서도, 新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석유·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관리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작년 6월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2023년 2월 노·사 합의로 추진한 3년('23～'25년)에 걸친 단계적 조기폐광을 이행 완료하였다.

조기폐광 완료에 따라 금년 6월 30일자로 전 직원이 퇴사하고 7월 1일부터 ▲재무 관리, ▲소송 관리, ▲재고탄 판매 등 잔여 기능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추진 중인 경제진흥사업과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업소 부지, 사택 등을 국유재산법령 등 정부 자산매각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재고탄('24년말 기준, 110만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연탄을 主난방원 사용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듯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급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앞으로 석탄공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누적 부채를 포함한 기관 정리방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국내 석탄산업의 질서있는 퇴진과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2025년 주요 성과로 관세대응 비상상황 극복 총력지원,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공급망 안정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제시하였다.

2026년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트라는 국정 목표인 '수출 1조 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무역구조 혁신과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 관세협상 후속 전략적 수출·현지진출 지원,▲수출 1조달러 시대 준비를 위한 시장·품목·주체 다변화, ▲산업경쟁력과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전략적 투자유치, ▲공급망 안정과 국익 우선 통상협상 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기능 강화, ▲AI 3대 강국 도약 지원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트라는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과 신흥 동반국 지역에서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무역관도 '26년 2개소를 개소(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산호세코스타리카)하여 신흥시장의 수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K-수출스타' 사업을 '26년부터 신규로 추진(402억 원)해 향후 5년간 수출 1천만 달러 이상의 중추기업 500개사를 육성하고, K-유통 플랫폼의 해외진출지원(470억원)을 통한 '한류 소비재 수출 하이웨이(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주요 성장산업의 新수출동력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 소기업·소상공인 1,000개사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수출희망 1000 사업'을 신설하고, 장애인·유공자·여성기업 등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도 확대하여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2026년은 공사가 무역구조 혁신과 경제안보 강화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수출시장·품목 다변화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글로벌 통상위기 돌파를 위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원활한 對美투자를 위해 ‘30년까지 총 49조원의 중장기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보가 가진 30년의 금융지원 노하우와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견인할 예정이다. 보증의 특성상 BIS 비율 등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다.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다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흥동반국 대상 수출 지원을 66조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해외 우량 발주처에 금융 한도를 선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를 견인하고 은행영업망을 적극 활용해 해외 신시장 선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中企 생산적 상생금융을 6조원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기금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고, 대기업 기금을 출연받아 협력사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전략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체계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 및 AI·신재생 등 전략 미래산업도 지원한다.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K-방산 정상외교와 연계한 CEO 마케팅을 실시하고, 수입국의 현지화 요구에 부응한 현지 생산거점 건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새정부의 ‘진짜성장’ 구현을 위한 AI 산업 全주기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 수요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新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AI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쳤으며, 신용정보와 빅데이터를 플랫폼에 담아내고, 다이렉트 상품에 AI를 접목하여 고객 만족의 차원을 높일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2026년은 공사가 대한민국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금융 컨트롤 타워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글로벌 통상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